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형목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박 규 택**

Interrelation among Weather, Agriculture and People's Life, and Policy in a Local in the Late Choson : In Case of 『Goseong Chongswaerok』 by O Hoeng-muk*

Park, Kyu-taeg**

요약: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고성부사로 재직 한 오형목이 기록한 『고성총쇄록』의 국역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오형목이 날씨, 농사, 주민의 삶, 지방행정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날씨는 크게 세 가지의 표현 방식, 단순·변동·농사 관련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날씨의 변동은 그 자체보다 백성의 삶과 사회·경제·정치와 연관시킬 때 보다 큰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날씨와 중앙·지방의 정책은 특정한 조건, 즉 가뭄이 심할 경우에 충돌하여 사회·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민요(民謠)를 일으킨 백성들의 행동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한적 행위자의 모습은 오형목 부사의 공무집행, 즉 진휼, 기우제, 세금 징수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성 지방의 날씨, 농사와 주민의 삶, 행정 간의 상호 관계는 개별 가구, 고을, 지방, 도, 국가의 중층적 규모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주요어: 정치생태학, 날씨, 지방, 농사, 진휼정책, 기우제, 민요(民謠), 중층적 규모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 translation of 『Goseong Chongswaerok』 by O Hoeng-muk as a local governor through political ecology. It focuses on how O Hoeng-muk recognized and wrote the interrelation among weather, agriculture, local resident's life, and local policy.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s. Firstly, weather was recorded into three types of expression, simple and dynamic expression and agriculture-related expression. Its dynamics was much meaningful and important when weather was related to local resident's life and local or non-local economy and politics. Secondly, weather and local government were conflict under a particular natural condition like severe drought. And society and politics are affected by such a conflict. Thirdly, local people's demonstration was occurred under a certain condition. Bounded agency can be founded in O Hoeng-muk's behavior as a local governor like jinhyul(賑恤), rain rituals, tax collection. Fourthly, the interrelation among weather, agriculture, local people's life, and local policy implemented in a particular local like Goseong ought to be interpreted in terms of multiple scales.

Key Words: political ecology, weather, local, agriculture, jinhyul, rain rituals, local people's demonstration, multiple scales

1. 서론

“봄이 죽었다. 농작물이 죽었다. 농민들의 희망도 죽었다.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습해 그리고 때 아닌 폭설, 냉해 등으로 시설재배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농민들의 항의의 뜻으

로 수박을 바닥에 내팽개쳐버렸다”(http://www.ohmynews.com, 2010-05-13).

“[20세기 동안의] 기온 상승은 자연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인 농업과 어업, 공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HK Professor,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pkt11@pusan.ac.kr)

은 상승 및 이상기상 출현과 같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이승호 등, 2008, 20).

첫 번째 인용문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올 해 봄 날씨는 예년과 뚜렷하게 다르다. 이러한 날씨 변화가 예외적이고 인간과 생태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미래의 날씨는 더욱 변덕스러워져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인간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동안 대기의 평균 상태를 나타내는 기후 변화는 농촌, 도시, 국가,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날씨 혹은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변화와 사회·문화·정치·경제가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에서 인간은 문화의 기재를 통해 자연에 적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Denevan, 1983, Head, 2010).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균형과 안정의 관점으로 설명되었다(Zimmerer, 1994, 2000). 이러한 시각은 자연의 불균형성·비에측성, 인간의 의도성, 권력(power), 역사, 중층적 규모(multiple scales)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탄생한 정치생태학¹⁾은 문화생태학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정치생태학은 Blaikie(1985)와 Blaikie and Brookfield(1987)의 저서가 출판된 이후에 지방/지역, 국가, 세계의 차원에서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환경 문제들, 토양침식, 삼림파괴, 대기·수질 오염, 폐기물, 가뭄/홍수, 기후변화 등을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학을 벗어나 타 학문 분야들,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철학, 생태학 등으로 확산된 정치생태학은 1990년대 이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을 길잡이 삼아 1893~1894년에 고성부사로 재직하던 오횡목이 일상의 자세한 일들을 기록한 『고성총쇄록』

의 국역본²⁾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체제가 성립되기 전인 조선 후기에 고성 지방을 다스렸던 수령(지방관료)인 오횡목이 날씨(가뭄), 농사와 백성의 삶, 지방행정(진휼, 기우제, 세금징수)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실천했는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고성총쇄록』은 19세기 후반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진행된 격변기 시대의 변화상과 지방 사회의 모습과 수령인 오횡목이 거의 매일의 날씨와 들판에 직접 나가서 관찰한 농경의 실제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최적의 자료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저서는 서구에서 정치생태학이란 이론적 틀이 탄생하기 훨씬 전에 이것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미 이해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토착적인 지적 수준의 높이를 보여 주고 있다.

2. 고성 지역 개관

19세기 말 오횡목이 부사로 재직했던 고성은 경상남도의 남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서북쪽에 진주와 사천이, 북동쪽에 진해가, 남쪽에 통영이 위치해 있다(그림 1). 지형적으로 고성 지역은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은 편이며, 긴 강이나 높은 산이 없는 대신 낮은 산지와 굴곡이 심한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마을은 산지 사이에 혹은 해안 가까이에 형성된 소규모 평야를 배경으로 발달하였다. 고성의 이웃에 병영(진주)과 수영(통영)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요구에 부응(副應)해야 되었기 때문에 고성의 관아와 백성의 삶은 고달팠다. 이러한 처지를 오횡목은 “통영 아래의 험한 행정과 바다 세금을 사납게 요구하는 것들이 [고성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1894년 7월 28일, 562). 김현구는 『고성총쇄록』 해제의 글에서 고성의 상대적 위치와 산지·해안 지형에 따른 불리함을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고성은] 영하읍(營下邑, 병·수영이 소재한 읍)의 제약(制約)을 받아 군권이 강력하게 작용하였고, 통제영 직할지인 춘원면은 수령의 관할 밖에 놓여 있었다. ... 더욱이 농업 생산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횡목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기반이 각 면의 절반 가까이 지형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어서 산이 많고 들이 적으며 해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농사 작황은 풍흉에 따라 가변성이 컸던 반면, 각종 공납물과 부세의 부담은 다른 고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하기 마련이었다”(고성문화원, 2007, 14~15).

일반적으로 고성의 기후는 한반도 남부해안의 기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와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반면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불어와 차고 건조해 진다. 여름철에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은 고성 고을의 농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벼의 이앙기, 성숙기, 추수기에 적당한 비가 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필요 이상으로 혹은 이하로 비가 오면 흉수 혹은 가뭄의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주민의 삶을 대단히 어렵게 하였다. 1971~2000년 동안 고성에 인접해 있는 통영의 기후를 보면, 6월~8월 사이에 월평균 강수량³⁾이 200mm 이상이며, 월평균 기온⁴⁾은 20℃를 넘는다(기상청, 기후자료).

2009년 고성군은 1읍 13면 262개 행정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는 25,198호이고 인구는 58,554명(남자 29,712명, 여자 28,842명)이며 가구당 인구는 2.3명이다(고성군청). 18세기 후반 고성 현은 15개의 면과 231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구는 9697호로 경상도 71개의 군현 가운데 8번째로 많았다. 당시 인구는 41,823명(남자 20,165명, 여자 21,658명)이고 가구당 인구는 4.3명이었다 『戶口總數』. 오횡목이 고성 부사로 부임한 직후(1893년 3월) 고을 전체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 본 읍지(邑誌)에 의하면, 가구는 9,503호이며 인구는 45,846명(남자 20,435명, 여자 25,41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읍지에는 고성의 경계와 한양·감영(대구)까지의 거리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고성 관아를 중심으로] 동으로 거제 경계까지 53리이고 남으로 바다까지 1리이고 서로 진주 경계까지 25리이고 사천 경계까지 40리이고 북으로 진해 경계까지 43리이고 한양까지는 960리이고 북으로 감영까지는 300리이다”(고성문화원, 2007, 88). 그리고 성내(城內)에는 매월 1일과 6일에 장날이었고, 관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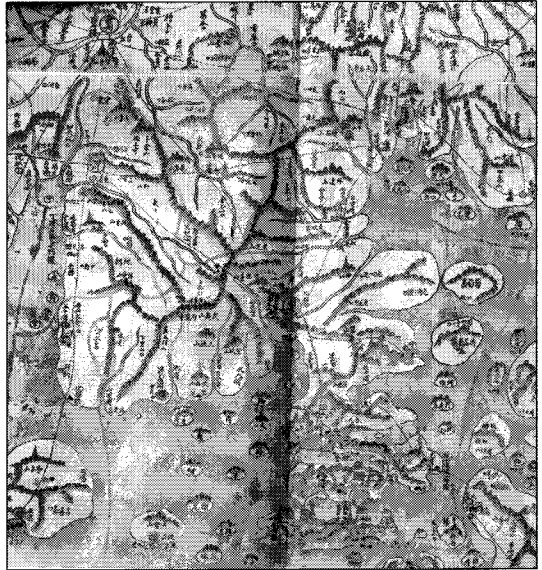


그림 1. 《동여도》의 고성과 인접지역

개의 역원(驛院), 배둔역(背屯驛, 고을 북쪽), 송도역(松道驛, 고을 동쪽), 구허역(丘墟驛, 고을 남쪽), 견내량원(見乃梁院, 고을 동쪽)이 있었다.

3. 문헌 고찰과 분석 틀

본 논문이 다룬 세 가지 주제, 조선후기의 날씨, 농사와 농민, 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그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들 주제에 대해 여러 학문분야에서 축적시킨 연구 결과들에 대한 비평은 저자의 역량을 초과(超過)할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간과(看過)한 점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 연구에 이용될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기후와 농업을 다룬 연구는 박근필(2005), 이호철·박근필(1997), 전성호(2002) 등이 있고,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와 정부 혹은 민간의 대응책을 논의한 연구들은 김오진(2008), 김재호(2001), 소선섭·김용현(2002), 염정섭(2006), 오종록(1991), 이민수(2002), 오인택(2007), 원재영(2008), 정형지(1997, 2003), 최종성(1997, 2008) 등이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책과 지방(혹은 군현) 지배를 논의한 논문은 구완회(1993)와 박경하(1998)가 있다.

조선후기의 기후와 농업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들은 대체로 소빙기적 기후 현상⁵⁾, 즉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 기후에 의해 가뭄과 흉수가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변동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였다. 예를 들면, “1809~1825년의 기간은 한재와 수재가 겹치고, 여기에다 전염병이 덮치는 등의 매우 극한적인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 이른바 소빙기적인 기상 재해가 낳은 농업위기 때문에 조선사회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시련을 겪었음을 확인한다”(이호철·박근필, 1997, 189). 전성호(2002)는 18~19세기에 있어서 기후충격과 곡물저장·시장통합의 관계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흉년을 검토하였다. “19세기의 경우, 연속 흉년의 해가 18세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 흉년에 대한 사회적 완충작용을 하는 곡물저장이나 시장통합이 18세기에 비해 19세기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 가는 것을 나타낸다. 19세기의 연속 흉년의 해는 흥경래의 난(1811), 수도 서울의 쌀 폭동(1834), 갑오동학농민혁명(1894) 등 주요 농민 반란이나 사회적인 소동이 발발한 년도와 일치한다”(전성호, 2002, 87).

조선후기 자연재해, 특히 가뭄과 기근에 대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대책은 다양하였다.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 정부가 실행한 진휼정책(賑恤政策)과 기우제(祈雨祭)를 간략하게 논의한다. 정형지(1997)는 조선 후기(숙종대) 진휼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자연 재해는 흉년과 기근으로 연결되어 왕조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였다. 진휼정책은 재해 발생 이후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서 농민의 재생산 기반을 국가가 보장해 줌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기하는 대민지배 정책의 한 방법이었다. 조선후기 사회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지주제가 확대되고 농민층 분해가 심화되어 농민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부세수취 방향이 토지로 집중됨에 따라 지배적인 신분과 특권을 유지하던

지주들의 불법 탈세가 증가했다. 자연히 조세 수입이 감축되어 정부의 재정 부족은 심각해져 갔다. ... 조선후기의 역사적 상황은 [왕조] 체제 유지를 위한 전제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진휼정책의 시행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휼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어 갔다. ... 재정 부족에 허덕이던 정부가 진휼 효과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 [진휼정책은] 기민 구제의 실패와 국가 재정, 양면을 고려해야 [만 되었다](정형지, 1997, 48~50).

원재영(2008)은 전라도 임실현(任實縣)을 사례로 진휼정책을 권농(勸農), 감농(監農), 진휼(賑恤)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조선왕조의 일련의 농업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권농을 통해 한해의 농사가 시작되며, 감농작업을 통해 농산물 작황의 여부를 파악한다. 감농의 과정에서 흉년이 예상되면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졌다.⁶⁾ 마지막으로 추수가 끝나 흉년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진휼의 시행을 위해 진자(賑資)를 확보하였다. 진자를 확보하는 과정에 수령(守令)을 매개로 지방에 일정한 자율권이 허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진휼정책의 실행은 중앙정부의 관할아래 최하 향촌단위에서 운영을 수령에게 전담시켰다(원재영, 2008, 371). 김오진(2008)은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기상재해에 의해 기근이 심화되었을 때 관민(官民)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연구하였다. 정부에서는 육지의 곡식을 제주도로 이전하여 백성을 구제하거나 제주도 사람들을 육지로 이주시켜 만성적인 기근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농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농법을 실행하였다(김오진, 2008, 858).

가뭄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대응책이 기우제이다. 오인택(2007)은 조선 후기의 국행 기우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띄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기우제를 통해서 당시(숙종대) 사회와 한재(旱災)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우제의 언어는 당시 사회가 공유한 언어였다. 이 언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한재를 지배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았다”(오인택, 2007, 191). 오용원(2009)은 오형묵이 실행한 기우제를 대민의 식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기우제는 지방관으로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횡목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서 공무를 수행하는 일상의 의례적인 면과 백성을 위로하고 지역 사회를 통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한발이라는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위기 시에 중앙이나 지방관의 주도에 의해 진행되었던 기후제 의례는 어쩌면 의례의 연속성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안정성이라는 위안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오용원, 2009, 141). 관(官)이 아닌 민(民)이 주도한 기후제도 사회를 통합하려는 성격을 띄고 있었다. “마을 기후제는 마을 공동체 의례로써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사회적 불안감과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기태, 2007, 266).

조선 후기의 기후, 농업/농민, 정부대책을 다룬 논문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점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개별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복합 주제들을 분석할 경우, 이들을 묶어 줄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주제들은 중앙 혹은 지방의 관점에서 분석되었지 규모(scale)의 중층성과 역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세 번째로 기후와 농민·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해 치밀하게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개념적 틀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 이 틀은 오횡목의 『고성총쇄록』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생태적·문화적·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정치생태학은 『고성총쇄록』에 기록된 날씨, 농업활동, 정부정책, 농민운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생태학의 국내·외 연구들에 대한 문헌 고찰은 차후로 미루고 정치생태학이 『고성총쇄록』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될 세 가지 관점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1) 자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정치생태학에서 자연 (혹은 생태계)의 이해에

관해서 논의한다. 정치생태학이 비판한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은 자연을 균형(equilibrium), 예측성(predictability), 안정성(stability) 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문화를 매개로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방식은 새로운 생태학(new ecology)⁷⁾에 의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Botkin, 1990; Phillips, 2004; Scoones, 1999; Zimmerer, 1994). 새로운 생태학에 의하면, 자연은 불균형(nonequilibrium), 불안정(instability), 예측 불가능(chaotic fluctuation)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을 교란(disturbance)시키는 능동적 행위자(agent)로 인식되었다. 이 견해는 정치생태학의 연구에 반영되었다(Zimmerer, 2000; Oetelaar, G.A and Oetelaar, D.J. 2007).

정치생태학은 자연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역동적 상호작용하는 시각으로 설명 혹은 해석한다. 이 관점은 인간을 자연에 종속시키거나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작업 혹은 이와 반대의 작업을 비판한다. 정치생태학은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거나 혹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인식한다(박규택, 2005; Nygren and Rikoon, 2008). 특히 1990년대 이후 후기구조주의 영향을 받은 정치생태학은 상징성, 담론, 지식, 권력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자연 (혹은 생태계)가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등한시하거나 주변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Walker, 2005).

2) 생태학에 있어서 정치

사회와 생태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생태학에서 ‘정치’와 ‘정책’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한다(Walker, 2006, 2007). 이 문제는 Bryant(1998), Paulson et al.(2003), Rangan and Kull(2009), Walker(2007) 등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근대화론의 수용, 경제성장, 외부 자본의 유입 등에 의해 지역의 자연자원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는 지역 생태계와 사회의 상호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정치생태학자(Blaikie, Brookfield, Wolf)는 국가

혹은 세계 규모에서 작동하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문화 생태학을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으로 대체하였다. 이것은 '진화와 적응의 이론으로 분석된 인간 삶의 생물·물리적 특성'을 '정치경제학의 맥락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인간 삶의 사회적·문화적 차원'으로 초점을 이동시킨 것이다(Paulson, et al., 2003, 208~209)⁸⁾.

1990년대 이후 정치생태학은 후기구조주의와 실천이론을 수용하면서 정치는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에 스며있는 권력 관계를 의미하며, 이것은 도전과 타협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상징적·추론적(discursive) 의미도 가미되었다. Bryant (1998)는 정치생태학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을 비판하였다. "지방의 환경갈등을 전지구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연관된 계급관계와 잉여 착취의 관점으로 설명함에 따라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에 접근(access)하고 [생성되는] 갈등을 매개하는 지방정치의 역할이 흔히 소홀하게 된다. ... 국가는 전형적으로 자본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Bryant, 1998, 82). 본 연구는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수립되기 전인 조선왕조체제 하에서의 펼쳐진 정치, 특히 가뭄과 대책 그리고 조세 문제와 관련된 지방정치를 다룰 것이다. 수령의 통치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 볼 지방정치는 고을 백성의 삶과 중앙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지방정치가 다중적 규모(multiple scale)의 측면에서 분석되고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⁹⁾

3) 제한적 행위자(bounded agent)

1980년대 중반 지리학자들이 주도한 정치생태학은 후진국(혹은 개발도상국)의 지역에서 발생한 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사회 변화(혹은 갈등)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근대화론, 문화생태학, 등 전통적 이론들을 비판한 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을 수용함에 따라 '구조와 행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었다(Watts et al., 1997, 79~80). 특히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생산력과 생산의 사회적 관계(특히 계급 관계)로 구성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강조점을 두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자원 이용과 사회적 갈등에 관계

된 다양한 행위자들, 주민, 이익(혹은 이해)집단, 지방정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 다양한 행위자들은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제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 혹은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Bury(2008)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과 지방(local)의 인문·환경 변화를 연계시킬 수 있는 행위자 지향적인 정치생태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Chowdhury and Turner II(2006)는 멕시코의 남부 유카탄 지역에서 생계와 이윤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지주들의 토지 이용 전략을 행위자와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행위자는 자신들의 존재와 관련된 정치적·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그리고 [특정한] 전략을 선택할 때 작동하는 경로 의존적 제약(path-dependent constraints)으로부터 배운 문화적·역사적 경험들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과 경험은 가구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며 생물·물리적 환경과함께 의사결정을 매개한다"(Chowdhury and Turner II, 2006, 303). 본 연구는 전근대 사회에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와 부당한 세금과 폭정의 정치적·경제적 제약 하에서 농민이 어떻게 자신들의 의사를 능동적으로 표출하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지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형묵 부사도 백성의 삶과 중앙정치(혹은 중앙집권적 왕조)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

4. 날씨와 농사 활동

『고성총쇄록』에서 오형묵은 날씨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날씨를 농사일정, 작황(作況)의 지역적 차이, 기우제, 주민들의 관습(투장) 등과 밀접하게 관련짓고 있다. 이것들은 정치생태학의 핵심적 내용들, 자연의 불균형·불확실성·역동성과 자연-사회·경제 활동의 관계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 날씨의 역동성과 표현 방식

오형묵은 고성관아(현 고성읍)의 날씨를 간단한 형식에서부터 매우 세밀하고 변동하는 측면으로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횡목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표 1. 날씨의 표현 방식

구분	날짜	표현
단순 방식	1893년 2월 29일	비가 내렸다
	1893년 4월 10일	진각(辰刻: 오전 7~9시)에 비가 내렸다.
	1894년 3월 3일	구름이 끼었다.
	1894년 5월 11일	가랑비 내렸다.
변동 방식	1893년 3월 9일	미각(未刻: 오후 2~3시)에 우레와 비바람이 치다가 밤에서야 그쳤다.
	1893년 6월 5일	아침에 비가 내리고 점심때는 개였다.
	1894년 3월 22일	비가 내리다 늦게 개였다. 사흘 연이어 동풍이 크게 불다.
	1894년 5월 20일	구름 혹은 가랑비 날리다가 밤에는 큰 비가 새벽까지 내렸다.
농사 관련 방식	1893년 5월 26일	가뭄 끝에 한번 내린 비가 적어서 높고 건조한 곳은 아직 흡족하지 못하다.
	1893년 6월 24일	구름이 많이 끼었다. 날마다 비가 올 듯 하는 징조는 있는데 끝까지 가물고 있으니 매우 걱정이다.
	1894년 5월 2일	목화는 땅에 촉이 나와서 점점 자라는데 다만 모내기 비가 흡족하지 않아서 걱정이다.
	1894년 5월 16일	비가 내림. 근일에 비가 계속 내려 열흘이 지났는데도 개이지 않으니 가난한 집의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수확하지 못한 보리가 모두 썩고 짝이 난다.

자료: 고성문화원, 2007

그리고 농사와 관련지어 기록하고 있다(표 1). 현대 기후학은 날씨의 구성요소, 즉 하루 혹은 단기간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강수량, 기온, 바람 등을 사회·문화·경제 활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성총쇄록』에 기록된 날씨는 지방 관료의 일상적 관찰과 경험에 토대를 두고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894년 3월 22일의 경우, 날씨가 하루 혹은 삼사일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지속의 상태를 동시에 기술하고 있다. “비가 내리다 늦게 개이다. 사흘 연이어 동풍이 크게 부니 이는 아마도 모택에 손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오횡목은 지방 관료의 중요한 소임인 권농(勸農)¹⁰을 위해 농사와 관련지어 날씨를 기술하고 있다. 1893년 5월 10일의 일기를 보면, 비가 내렸고 몇 일 동안 관아의 인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권농을 하였다. 또한 방문하지 못한 지역에 55냥의 돈을 각 면과 리의 농정(農丁)에게 나누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권농에 대한 자신의 과거 경험과 고성부사로 부임한 직후 최우선으로 할 일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수령(守令)의 일곱가지 일¹¹에 농상(農桑):

농사와 길쌈이 하나이니 바로 전준(田隴)¹²까지 겸직하는 뜻이다. 내가 지난 번에 동쪽 고을에 있을 때 ... 매양 곡식을 뿌리는 시기를 만나면 문득 농민들이 일하는 곳에 나아가서, 그들이 모내기하는 노래를 들어보면 태평시대의 참다운 즐거움을 알 수가 있었고, 논밭에 김매기하는 부지런함을 보면 농사일이 괴로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열전과 바늘로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뜻을 보이면서 날마다 일(권농)을 삼으니 백성들도 나를 싫어하지 않았다(1893년, 5월 10일, 179).

오횡목은 1893년 7월 22~23일 동안 고성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피해 상황을 감영에 보고 하였다. 그는 가뭄 끝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은 오후부터 바람이 세어지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바뀌었다.

[22일] 바람불고 비도 내리니 오래도록 가문 나머지 지극히 위로가 되었다. 오후에는 바람이 점점 커져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넘어가며 소리가 천지를 움직이니, [23일] 새벽

에는 북풍이 땅을 쓸고 간 찬 기운도 맹렬하였다. 날이 새고 일어나 살펴보니 울타리와 숲이 꺾이며 찢어졌고, 들판은 참담하였다. 완전히 한차례의 상전벽해(桑田碧海)를 겪은 듯 마을 언덕사이에 부녀노소들이 부르짖어 울지 않는 이가 없으니, ... 고금에 없는 살벌한 해가 되겠도다(1893년 7월 22~23일, 225~226).

24일 축시(丑時)경에 그치니 참혹한 상태가 난리를 겪음과 같았고, 해가 떠오르자 또 가뭄이라 들빛이 타 붙음에 이르니 한번 온 들판을 바라보니 심란하고 자못 푸른빛이 없으니 서리 내린 뒤와 같습니다. 올벼 이삭이 이미 나온 것과 늦벼의 피어오르는 [새싹이] 다 함께 그 운명입니다(피해를 입었습니다). 밭에 심은 각종 곡식과 목화도 시들고 꺾이고 부서지고 떨어져 쪼는 물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한 해의 풍흉이 갑자기 하루저녁 사이에 결판나니 민심은 급급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노약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부르짖고 통곡하니 참담한 형상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1893년 7월 22~23일, 226).

2) 날씨와 논농사의 관계성

일반적으로 백성이 굶주리지 않으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농사가 풍년이어야 한다. 과거 수리시설이 발달되지 못한 때에 농사는 거의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여 왔다.¹³⁾ 벼농사는 시기에 맞추어 비가 적당히 오지 않으면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든다. 따라서 매일의 날씨도 중요하지만 농사철, 특히 논농사의 시작과 마무리 기간인 봄부터 여름까지의 날씨는 풍년과 흉년을 결정짓는데 절대적인 요인이다. 이 점은 『고성총쇄록』의 날씨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표 2〉은 오형묵이 고성 관아에서 관찰한 날씨(3~7월)를 단순화시켜 정리한 것이다. 1893년도 4월 10일부터 5월 초까지 비가 내렸지만 이후 가뭄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6월 중순(19일)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게 되었다. 다음 해는 3월초부터 5월말까지 비가 비교적 고르게 내렸다. 특히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와서 수해를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초부터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자 7월 초와 중순에 기우제를 지냈다. 일반적으로 두 해의 날씨를 논농사와 관련지어 보면, 논농사가 시작되는 시점, 즉 못자리를 만들고 모내기하는 때에 비가 어느 정도 왔지만 이후 벼가 성장하는 시기에 가뭄이 계속되었고 이를 상징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우제가 실행되었다.

1893년 4월 25일에 오형묵은 권농(勸農)을 위해 관아 밖으로 나가보니 비가 적당히 내려 모내기가 막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이 들판에서 모를 심고 있는데 많은 집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몇 십 명이 되었고, 농가(農家)를 부르며 즐거워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본 오형묵은 마음이 흠족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지었다.

어젯밤에 쏟아진 한줄기 비가 이쪽 저쪽 뚝방마다 물이 가득하구나. 농가의 일은 때를 맞추어 중요하니 일찍부터 소 끌고 모내기를 서두르는구려. 도롱이는 어깨에 샅샅이 이마에 아낙의 얼굴 흐뭇하고 사나이도 기뻐하네(1893년 4월 25일, 157).

오형묵은 5월에도 농사일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농민에게 약간의 돈과 바늘을 선물로 주었다. 1일 도선면 지역에서 권농하는데 8민의 돈과 7갑의 바늘이 이용되었고, 다음 날 늦은 오후 비가 그치자 관아를 나와 향교 앞들에서 도곡평까지 권농하였고 이 때 7민의 돈과 6갑의 바늘을 농민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5월 초순이후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아 오형묵은 가뭄을 걱정하기 시작하였다.¹⁴⁾ 이후 6월 중순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보(泚, 못) 옆에 있는 논에도 물이 마르고 또한 멀구까지 크게 일어나 가뭄의 피해가 심각해졌다. 따라서 6월 18일에 오형묵은 관례에 따라 기우제를 행할 것이라고 감영에 알리고 19일부터 26일까지 7번의 기우제를 거행하였다(표 2).

1894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이 모내기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비가 내렸지만 이후 한 동안 비가 계속 온 뒤 6월초부터 가뭄이 시작되어 7월 초순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결국 기우제를 지냈다. 작년의 가뭄에 따른 흉년으로 고을 사람들의 생활이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형묵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표 2. 고성의 날씨*와 기후제, 1893~1894년

일	3월		4월		5월		6월		7월	
	1893년	1894년	1893년	1894년	1893년	1894년	1893년	1894년	1893년	1894년
1						비		비		
2		구름		구름 비	구름 비		구름 비			
3		구름		구름	비		구름			
4					구름		구름			
5	비			비	구름		구름 비			
6		구름 비			비	구름 비		구름 바람		
7		비		비	비 구름		구름 바람			기우제
8										기우제
9	비 바람			구름	비				비	구름
10			비		비	비 남풍				
11			비			비 남풍			구름 비	
12						비			비	바람
13		구름	구름			비				바람
14		구름				비				
15		비				비				
16		구름				비			구름	
17	비	구름 비	구름	비		비				기우제
18		비				구름				
19							기우제	비		기우제
20			비			구름 비	기우제			
21		비				비	구름 비 기우제		구름	기우제
22		비					기우제		바람 비 (태풍)	
23							구름 비 기우제		바람 비	기우제
24		비	구름, 비		구름 비		기우제			
25					비		기우제			
26							기우제		구름	
27			비, 바람			비				
28		비, 바람	비			비			구름	
29				비		비			구름	
30										
31										

* 고성은 좀더 구체적으로 고성관아를 의미하고, 날씨는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단순화시켰다. 매일 날씨를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알려면 『고성총쇄록』의 해당 일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자료: 고성문화원, 2007

곤궁하게 되어 진휼(賑恤)이 실시된 후 4월 중순 경 보리가 익어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끝이 나게 되었다.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까지 모내기를 하는 시기였지만 비가 흠족하지 않았다. 오횡목은 5월 2일의 일기에 “못자리는 잘 자라서 바야흐로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목화는 땅에 촉이 나와서 점점 자라는데 다만 모내기 비가 흠족하지 않아서 사뭇 걱정이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게 되자 수해가 걱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시를 지어 고민을 잊으려 하였다.

백성걱정 나라 계획에 운세를 따져보니 보리농사 금년엔 풍년이 들겠네. 일반 민가에는 큰 그릇에 국수가 가득하고 사방 들판에는 농민의 노래 새로워라. 어찌해서 비가 자주 내리는가? 밀, 보리 감소가 너무 많도다. 덜 어냄을 좋아하고 가득함을 싫어하는 경계가 있으니 망망한 하늘의 뜻을 어이 안단 말인가?(1894년 5월 16일, 483).

수해의 걱정은 6월초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자 가뭄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었다. 6월 19일 오횡목은 가뭄이 오래 지속된다면 장차 모두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7월초가 되어도 비가 오지 않자 다급하게 기우제를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 가뭄 실태의 공간적 차이와 기우제

1893년과 1894년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벼의 성장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어 모심기 때 기대했던 풍년은 사라지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흉년의 해가 되었다. 가뭄 피해는 고을 내에서 그리고 경상도 남부 지역에 고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정도의 차이는 오횡목이 농사 현장을 직접 관찰한 결과를 일기에 기록하였다. 1894년 6월 19일에 오횡목이 통영으로 가는 길에 최근의 가뭄이 걱정이 되어 주변의 농사 상황을 살펴보니 “높고 건조한 곳은 너무 가뭄을 타고 있으나 저지대 습한 땅은 벼 싹

이 무성하고 그 밖에 밭농사도 모두 대풍이 들것을 희망할 만 하였다. 그러나 가뭄이 오래 지속된다면 장차 모두 문제가 될 것이다.” 같은 해 6월 26일에 관아 북쪽의 산지 지형에 위치한 지역들(마암, 배둔, 회현 등)을 살펴보니 “물이 풍족한 곳에는 농사 형편이 매우 좋으나 그밖에 높고 건조한 땅은 하얗게 말라붙고 갈라졌으며 물 푸는 두레박이 온 들에 가득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하였다.” 다음은 가뭄에 따른 피해조사를 종합한 결과인데, 고성 내에서의 차이를 잘 기술하고 있다.

대저 회현면은 산과 바다에 접해 있는데 바다에 가까운 곳은 바람 피해가 더욱 심하였다. 동마암은 바다에 가까운 곳이 없는데 회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으며 들판은 조금 나왔다. 서마암은 들판과 산골짜기 서로 반반 되어 모두 손해를 입었으니 전연 모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 동읍에는 큰 들 하나 뿐인데 손해를 본 것이 매우 많았다. 광일과 동읍은 들이 연이어졌는데 본래 가뭄을 타는 지역으로서 이삭이 나왔다가 말라붙고 겹해서 충해도 많았다. 광이는 들 하나가 바다에 닿았는데 조금 나왔고, 도선은 좌우로 바다가 있고 산이 많으며 들은 좁고 건조하여 가뭄 피해를 보니 매우 안타까웠다. ... 하일은 산이나 들의 토지가 바닷가에 있으며, 소금을 굽고 산에 의지하며 농경을 하는데 조금은 하이의 상황에 못 미치었다. ... 구만은 동마암과 서로 가까우며 별도로 산중의 한 지역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고을의 금기(禁畝)가 있다하여 백성들이 막으므로 마침내 보지 못하였다(1893년 9월 14일, 275~276).

가뭄 상황이 고을의 위치와 자연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상도 남부 지역의 일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893년 8월 28일의 일기에 오횡목은 지난 수 일 동안 경상도 남부와 중부¹⁵⁾를 둘러 본 경험에 의하면 “진주에서 의령까지는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창녕, 현풍은 일찍 바람 피해를 고르게 입었고, 대구지역은 옛날에 없는 큰 흉년이라 할 수 있으며 밀양에 이르러서는 풍재와 한재가 전연 없다고는 하지 못한다 하여, 진지한 이야기가 몇 시간이 이어졌다”라고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횡묵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표 3. 기우제

구분	거행일	날씨	시간 및 장소	기타	
1893년	6월 19일	맑음	자각(23~01시), 사직단(社稷壇)		
	20일	맑음	상동, 성황단		
	21일	구름 약간의 비	상동, 무량산		
	22일	구름 별도 약간 보임	상동, 용두정(龍頭亭)		
	23일	구름, 남풍 밤에 약간의 비	상동, 배산		
	24일	구름 많음	상동, 불암연(佛巖淵)		
	25일	맑음	상동, 범천산		
	26일	밤에 비가 내리다 그침	상동, 금정산	입추(立秋)	
1894년	7월 6일	맑음	자각(子刻), 배산	오횡묵이 임의로 결정한 뒤 실행	
	7일	맑음	상동, 용두정	상동, 입추(立秋)	
	8일	맑음	상동, 불암연	상동	
	17일	-	-	사직단 좌수가 대행	
	19일	-	-	성황단	상동
	21일	-	-	무량산	상동
	23일	-	-	용두정	상동, 처서(處暑)

자료: 고성문화원, 2007

기록하였다. 1894년 6월 26일의 일기에 의하면, “[고성 인근 지역의 가뭄 상황은] 우비치를 넘어 진해읍을 지나 우산에 이르는 30리 사이의 농토가 마르고 갈라진 상황이 고성보다 더하고 가장 심한 것은 올벼는 이미 이삭이 나왔다가 하얗게 말라죽고 있으니 입추(立秋)가 다되어 다시는 희망이 없다.”

1893년의 기우제는 6월 19일에 처음으로 실행되었다. 6월 초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보름 이상 가뭄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기우제¹⁶⁾가 실행되었다(표 3). 조선왕족실록에 기록된 기상요소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우제는 주로 5월 못자리와 6월 모내기, 7·8월 생육기간에 주로 행해진다”(소선섭·김용현, 2000, 46)¹⁷⁾. 6월 18일의 일기를 보면, 7일에 소나기가 온 뒤 가뭄이 계속되어 보(糞, 못) 옆에 위치한 논에도 물이 마르고 벼멸구도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콩과 목화의 연한 잎이 시들고 밭의 김을 매기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오횡묵은

내일부터 기우제를 지낸다는 사실을 감영에 보고 하였다. 그리고 19일부터 26일까지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각기 다른 장소를 택해서 8번의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가 실행되는 기간 동안 구름이 끼거나 약간의 비는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시킬 만한 비는 오지 않았다. 첫 번째 기우제는 오횡묵이 일상적 업무를 중단하고 몸을 깨끗이 한 뒤 공복(公服)을 입고 사직단(社稷壇)¹⁸⁾에 가서 직접 헌관(獻官)¹⁹⁾이 되어 실행되었다. 이 날의 기우제에 사용된 제문(祭文)은 다음과 같다.

신(神)께서는 신령한 힘으로 우리 백성의 식량을 관장하시니 기도하면 반드시 반응하여 재앙을 구제하고 복을 돌려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지금 저 하늘은 이처럼 가뭄을 주십니까? 저 늙은 농토가 말라붙고 갈라졌습니다. 임금께서도 근심하시어 밤낮으로 두려워하십니다. 이처럼 부덕한 사람이 이 고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힘과 정성을 다해 축원합니다. 곧 우사(雨師)에게 명하시어 흠족히 비를 내려주소서. 곡식은 즉시 흥이 나서 신음을 멈추고 노래할 것입니다. 예물을 이미 갖추었사오니, 경건한 올림에 흠향하옵소서 (1893년 6월 19일, 209).

인용된 제문에 따르면, 날씨와 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곡식은 하늘을 관장하는 신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뭄은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수령의 부덕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기우제는 공식적 의례 공간인 사직단과 성향단을 제외하고는 산천(山川)에서 실행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우제 관련 분석에 의하면, “대략 60개 정도의 명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 행정 구역의 산천 항목에 올라 있다. 기우제는 하천의 소(沼), 산봉우리, 바위, 우물 등에 마련된 제단에서 주로 지냈다”(범선규, 2010, 26). 기후제는 6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실행되었고, 입추(立秋)의 절후가 되어 서늘한 바람이 들에 불어오기 때문에 기우제를 더 이상 지낼 수 없음을 감영에 보고하였다.

1894년의 기우제는 전 해와 약간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기우제는 관례에 따르지 않고 오형목 자신의 판단에 의해 실행되었다. “가뭄이 날로 심해지니 민정은 위급한데 가을이 이미 다가와서 가우제도 지내는 예가 없다. 그러나 목민관(牧民官)의 책임에 있으면서 관례가 없다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다. ... 만약 관례대로 [기우제를 지낸다면] 마땅히 사직단에 가야 하는데 이번 거동은 내가 사사로이 정성을 바치는 것이므로 특별히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즉시 배산에다 실행하는 것이다”(1894년 7월 6일, 533-534). 3일 동안 산, 들, 물(하천)을 대상으로 기우제를 거행한 뒤 입추가 지난 뒤 멈추었다. 16일 감영에서 온 공문을 보니 다른 고을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17일부터 기우제를 다시 시작하여 23일까지 4번에 걸쳐 실행하였다. 이번 기우제는 7월 초에 실행된 기우제보다 형식적이었다. 4차례의 기우제는 오형목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좌수가 대행하였고, 처서(處暑)가 다가와 관례에 의해 멈추었다.

오형목은 가뭄이 심할 때 민간이 기우제단이 위치해 있는 산에 투장(偷葬)하는 관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금년의 가뭄에도 동리의 나무꾼들이 기우제단에 가서 살펴본 즉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투장을 했다가 이미 먼저 스스로 파냈었다’(1894년 7월 14일, 539). 오영원은 오형목이 쓴 『함안총쇄록』에 나타난 기우제를 분석하면서 고성 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를 밝히고 있다.

사직단, 안산(案山)에 올해 들어 몰래 무덤을 쓴 것이 열 두 기 정도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이 무덤을 파서 없애야 하늘에서 결국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곧바로 관속들에게 이 열 두 기의 무덤을 파내게 하였다. 이는 복을 구하고자 하는 주술적인 기우 행위로써 명당이나 신성시 되는 곳에 시체를 매장하면, 개인적으로 발복(發福)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산신이 노하여 가뭄이 일어난다고 믿었다(오영원, 2009, 135).

최종성에 의하면, 천제단이 위치한 산정은 길지(吉地)로 여겨져 투장과 암장의 욕망을 늘 받던 곳이었다. “산상의 길지에 묘를 쓰거나 암장하면 그 집안이 온갖 복을 독차지할 수 있으나 나머지 마을 주민 전체의 공동의 복은 위협을 받는다는 관념이 일반적이었다. ... 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투장과 암장한 묘를 파헤쳐 시체를 폭로하려는 의례가 집단적으로 전개되었다”(최종성, 2008, 71).

5. 가뭄과 진휼·조세

농업에 기반을 둔 전근대 사회에서 지속적 가뭄과 대규모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백성이 입는 심각한 피해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고 나아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진휼(賑恤)을 실시하였다. 정형지는 “진휼정책은 재해 발생 이후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서 농민의 재생산 기반을 국가가 보장해 줌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기하는 대민지배 정책²⁰⁾의 한 방법이었다”고 해석하였다(정형지, 1997, 48). ‘진휼은 재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산과 재생산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원재영, 2008, 325~326). 국가가 주도하는 진흥정책은 최종적으로 왕이 중앙 관료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 - 수령 - 백성의 관계망 속에서 실행되었다. 백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수령이 진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층부 권력, 임금과 감사(혹은 관찰사)의 허락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더욱이 진흥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과 직결되어²¹⁾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갈등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오형묵의 일기는 고성 지방에서 가뭄에 의해 발생한 흉년에 따른 진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행되었으며, 이에 포함된 모순적 성격과 수령의 역할에 대한 괴로운 심정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1) 백성과 진흥에 대한 오형묵의 인식

수령은 왕명을 받들어 고을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권농(勸農)에 정성을 다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세금을 거두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과 대규모 흉수(혹은 태풍) 피해로 인해 백성의 생활이 파탄하게 되었을 때 수령의 직무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진흥은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 굶주린 백성을 우선적으로 구제함과 동시에 농민을 재산산시켜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독립적인 빈민 구제활동이 아니라 농업활동을 진작시키는 권농과 농사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하는 일과 관련지어져 이루어진다.²²⁾ 오형묵은 권농을 위해 농사현장을 찾아다니며 밭작물(보리 혹은 면화)을 수확하거나 논에 모내기를 하는 농민을 격려하고 돈과 바늘 등을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날씨를 지속적으로 관찰·기록하고 농사, 특히 논농사의 상태를 자연환경과 지역적 조건 등과 관련시켜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형묵은 태풍, 장마, 가뭄 등의 자연적 요인에 의해 농작물의 성장과 작황이 나빠져 농민의 생활이 대단히 어렵게 됨을 늘 걱정하였다.

그는 백성의 생활이 어렵게 되는 이유는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정부의 세금 그리고 아전과 향리 등의 횡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고성에서의 세금 징수와 횡포는 다른 고을에 비해 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²³⁾ 부임 초기부터 이것을 바로잡아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였다.²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고성이란 고을은 바닷가에 있고 백성은 드세고 땅은 척박해서 다스리기 어렵다네. 그에 더해서 영문(감영, 통영, 병영)의 요구는 다른 고을에 비해 백배나 더하고 겹해서 명분 없는 세금은 해마다 더하고 불어나네. ... 먼저 폐단으로부터 간사에까지 빗질하고 조사하여 천 가지는 없었노라. ... 모심은 언덕에 돈을 주면 농민이 힘을 내고 ... 해는 비록 조금 가물더라도 가을을 희망하며 우리 백성들과 함께 밝은 풍년 누릴 것을 기대했었지.

괴이한 비바람(태풍) 갑자기 불어 한번의 큰 겁란은 상전벽해 따로 없도다. 언덕인지 농토인지 막막하여 참새 쪼을 것도 없으니 백발노인 글썽이는 눈물을 차마 보겠던가? ... 드디어 재난조사에 발이 부룻났고 이어서 감영에 하소연하는 일에 붓이 모자라졌도다. ... 녹봉을 털어 온 고을에 나누어 우선 심한 자라도 마음으로 풀칠하게 하였도다. 선달 그믐날 성안의 네 마을을 순시하니 반 이상이 파손된 집에 찬바람 불었도다. 굶주리고 추워하는 모습 참혹하여 동전 5냥 혹은 7냥 사람수대로 나누었도다. [관아로] 돌아와서 밤을 지키며 새벽까지 앉았으니 붉은 아침 해 새해를 밝혀 기쁘도다. ... 정월 초 열흘되어 비로소 나라의 구휼 얻어니 피골이 상연한 모습 보기에도 비참하였도다(1894년 9월 6일, 637~639).

오형묵은 수령으로 백성을 보살피고 진흥을 실행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보다 왕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신하의 모습이 일기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예로 1893년 3월 18일에 감영에서 내려온 임금의 서신과 이에 대한 오형묵의 태도에 잘 나타나 있다. 두 인용문은 임금의 서신과 오형묵의 반응을 표현한 것이다.

내(고종)가 왕위에 오른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다. ...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

성은 농사로 생업을 삼으니 그들이 받을 다스림은 비록 하늘의 때를 따르지만 마땅히 땅의 유리함도 다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농사는 비록 땅이 유리함에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도 닦아야 하는 것이다. ... 독과 축대를 수축한 연후에 가뭄을 대비할 수 있고, 도랑을 파서 물길을 소통시킨 연후에 장마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 아전들이 방종하여 생업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이며 취령을 많이 해서 그 힘을 갈취하지 말고 방심하고 소홀히 해서 그 마음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관장들(감사와 수령)의 책임이다(1893년 3월 18일, 75-76).

[위의 글과 같이] 임금의 생각은 백성 걱정에 간절하여 은혜로운 유지의 첫머리를 농사일 밝힘에 언급하시었다. 그 대답하는 도리에 어찌 감히 터럭만치라도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는가? 우선 언문(諺文)으로 번역해서 면과 마을에 전파하고 타이르며 저 농사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궁궐 안에서도 걱정하시는 마음을 체험하여 준비하는 일에 때를 잃지 않게 하고 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물 눈에 농사함을 지리에 따라 활용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관에서는 두루 언덕이나 습지를 돌아다니며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살피고 종자나 식량이 부족하면 특별히 도와주고 인부와 농우(農牛)가 부족하면 급히 서로 돕게 해야 한다(1893년 3월 18일, 76~77).

2) 진흥정책의 실행과정

오형묵은 6월 하순 기우제가 끝난 뒤 가뭄에 따른 피해와 대책을 지속적으로 걱정하다 8월 13일에 각 면에 서원(書員)을 보내 흉년 재해를 파악하게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8월 26일 감영에 들러 감사에게 고을의 흉년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 시점부터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진흥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몇 차례의 공식적 절차를 거쳐 1894년 1월 11일에 첫 번째 진흥이 실시되었고, 이는 보리의 수확 시기인 4월 하순에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었다(〈표 4〉). 또한 〈표 4〉를 통해 오형묵이 진흥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10월 말부터

정부에 기일을 엄수하여 납부해야 될 각종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수령의 이율배반적인 위치를 읽을 수 있다.

1893년 8월 13일에 오형묵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흉년의 실태 조사를 시작하면서 각 면의 서원에게 '지금 이 재해조사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지 혹시라도 사사로움을 따르고 잘못 조사함이 알려지면 단연코 감영에 보고하여 처벌할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재해 조사는 호구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장차 조정의 진흥명이 있을 때 굶주린 백성을 뽑고, 이들에 대한 차등적 진흥의 실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루어졌다. 오형묵은 고성 고을의 흉년 실태를 감사에게 보고 한 뒤에도 좀더 세밀한 재해 조사를 9월 14일까지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적 조사를 바로 잡고 해당 서원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9월 12일에 오형묵은 포교, 두모치, 용호동, 등의 들판을 조사한 뒤 도곡(상서면)을 방문하였으나 재해 조사자인 서원이 대기하고 있지 않아 매우 괴심하게 생각하여 조사를 해 보니 불법이 밝혀져 관아에 잡아 가두고 황한옥, 천재식으로 하여금 재해조사를 다시 하게 하였다. 이 사실을 감영에 보고 하였다. 9월 14일에 고성 고을 전체에 대한 재해 조사를 끝내고 감영에 진흥을 청원한 뒤 명령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굶주린 백성을 보니 진흥을 빨리 실시해야 하는데, 감영으로부터 명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 일기에 남겨져 있다. "이 흉년에 백성의 구제는 오직 진흥하는 공무에 있는데 감영에 진흥을 청원해도 아직도 결재가 떨어지지 않고, 해는 저물어가고 민심은 험해지니 밤낮으로 고민한들 좋은 방법이 없도다"(1893년 11월 15일, 331). 진흥 실행의 시급함은 인정하지만 결정이 내리는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즉 고성 고을에서 실시될 진흥의 최종 결정은 감사가 아닌 임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경사도 감사가 왕에게 올린 도내의 흉년 상황과 진흥의 청원이 허가된 내용이다.

지난번에 도계(道啓, 경상감사가 임금에게 아뢰는 것)를 보니 영남의 흉년 상태를 대략 알 수가 있도다. 가뭄에 바람이 괴이해서 곡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형목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표 4. 진휼정책의 실행과 세금의 징수

구분	일시	내용
1893년	8월 13일	흉년 재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각 면에 지시함
	21일	재해조사를 하는 실무자는 각 면의 입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림.
	26일	감영(대구)에 들러 감사를 뵈고 고성 고을의 흉년 상황을 보고함.
	9월 1일	재해지역(신천)을 직접 답사, 조사 과정의 잘못을 바로잡음.
	3일	회현면의 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를 처벌함.
	12일	재해현장 방문, 부정행위자인 서원면의 서원을 잡아 가두고 재해조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감영에 보고함.
	14일	재해조사를 모두 마침. 재해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남.
	10월 4일	흉년의 위급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구제하는 방책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함.
	28일	세미를 받기 위해 창고를 여는 날이다.
	29일	조창에 나가 세를 받고 사창에 가서 환곡을 받았음.
	11월 8일	각 면의 서원에게 세미 징수를 독촉함.
	14일	동지이다. 팔죽, 탕, 백주를 각각 한 동으로 감옥에 있는 공납(公納)을 못 마친 죄인과 재결(災結, 재해입은 토지)에 농간을 부린 여러 아전에게 보냄.
	15일	굶주린 사람을 뽑아서 진휼하는 것에 대해 감영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못함.
	30일	고을의 큰 행정은 조세를 받는 일인데 3천석을 거두어 들었음. 흉년을 감안한다면 생각도 못하는 일이다.
	12월 10일	감영의 공문, 진휼할 곡식과 돈을 내려 보내어 진휼을 명함. 굶주린 사람을 파악해서 감영에 즉시 보고해야 함.
	23일	각 면의 굶주린 인구 파악함.
	26일	가난해서 해를 보내기 어려운 백성에게 돈냥씩 베풀어 줌.
30일	성 밑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핌	
1894년	1월 7일	각 면의 재해에 대한 실제의 숫자를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명함.
	9일	순영의 공문이 옴. 굶주린 인구는 원래 보고보다 2백명이 삭감되었다. 11일로 진휼을 실시한다는 뜻을 각 면에 전함.
	11일	진휼 첫날이다. 돈이 451냥이며, 이것은 감영에서 계획한 것이고, 소금 값 47냥 5전 5푼은 고성 관아에서 지출한 것이다.
	15일	가난하게 문학하는 선비의 진휼한 상황을 감영에 보고함.
	2월 6일	진휼하는 날인데 두 차례나 직접 감독하지 못하니 민망함.
	16일	다섯 등급으로 진휼을 나누어주는 날임.
	4월 17일	보리 추수가 점점 가까워져 나라에서 진휼하는 일도 점차 끝나게 되었다. 굶주린 백성 외에도 시급히 도와주어야 할 사람, 609명에게 햇보리 한 되 값은 7전을 줌.
	26일	굶주린 백성의 진휼이 끝나는 날임.
	29일	사진(私賑)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 일을 감영에 보고함.

자료: 고성문화원, 2007.

식이 큰 피해를 입었으니, ... 궁박한 백성의 생명을 구제하려면 조금도 대만할 수가 없는 데, 이웃 도에서 편리하게 옮겨갈 곡식이 없어, 본도의 사환곡(社還穀) 중에서 1만석을

준비하고 상납할 돈 중에서도 10만 냥을 특별히 계획하여 진휼에 보충한다. 또한 도신(道臣, 감사)과 수령들에게 신칙해서 굶주린 사람을 찾아내어 공평균등하게 다루어 흑시

한 사람이라도 떠도는 탄식이 없게 하여 나(임금)의 걱정하는 뜻을 체험하도록 하라(1893년 12월 10일, 352).

왕의 명에 따라 경상도 감사는 진휼의 실행을 수령에게 전달하였다. 우선 감사는 수령에게 각 고을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적어 책자를 만들어서 신속히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너무 많이 뽑지 말고, 가장 가난하고 도움이 급한 사람을 조사하여 뽑는데,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직접 조사할 것이며, 이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휼 대상자의 분류와 선정 기준 등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1893년 12월 10일, 353~354).

1. 남자와 여자 가운데 16세 이상 - 50세 이하는 장(壯)이 되고, 51세 이상은 노(老)가 되며, 15세 이하 - 11세 이상은 약(弱)이 되며, 10세 이하 - 3세 이상은 아(兒)가 되니, 이에 따라 시행할 것.
1. 기민 중 부황(浮黃)나서 죽게 된 사람은 마땅히 초등(初等)에 부치고 그 나머지 위급성에 따라 차례대로 후등(後等)에 부칠 것.
1. 면내에서 기민(饑民)을 뽑을 때, 농토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농토가 없고 의탁할 곳도 없으며 지극히 빈궁한 자와 진휼이 아니면 살기 어려운 자, 가난한 양반과 궁한 과부로 의탁할 곳도 없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를 각별히 뽑아서 그 상태에 따라 차례대로 진휼해야 할 것.
1. 기민이 사는 동네 이름, 호수, 나이, 성명을 자세히 기록하여 보고할 것.

1893년 12월 말에 가뭄 재해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각 면의 굶주린 가구는 1,551호이며, 이 가운데 남자 가구주는 1,096호이고 여자인 경우는 55호이다. 빈곤한 가구가 많은 면은 상리, 내이동, 회현, 하이, 도선 등이고 이와 반대의 면은 광이, 중서, 상일 등이다.

1894년 1월 초 오형묵은 감영으로부터 진휼의 실행에 대한 회보가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도중 1월 9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굶주린 인구는

원래 보고보다 2백 명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11일부터 진휼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각 면에 전하였다. 이후 진휼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실행한 뒤 4월 하순 보리 수확철이 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왕과 감사의 명령에 의한 공적 진휼(혹은 公賑)이 실행됨과 동시에 수령인 오형묵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적 진휼(혹은 私賑)이 동시에 실행된 것을 볼 수 있다(표 4). 예를 들면, “설 쇄기 전 굶주리는 백성을 조사한 것이 자세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봄을 지낸 다음에 반드시 빠뜨려서 급박한 자가 있겠기에 근신하는(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철저히 뽑아보니 그 수가 609명이나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따질 것 없이 한 사람당 피모(皮牟, 길보리) 한 뒷박의 대금 7전씩을 이달 22일에 부사의 봉급을 털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문서로 보고하는 것입니다”(1894년 4월 29일, 467).

3) 진휼과 세금 징수의 갈등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은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또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정의 확

표 5. 가뭄으로 인해 굶주린 가구수(1893년)

면	호수	면	호수
내이동	70	시달	17
외동	35	동마	50
내서	27	서마	45
외서	56	구만	59
중서	14	회현	63
상서	46	배둔	26
상일	7	광일	50
상리	78	광천	28
상남	42	광삼	26
하일	66	광이	15
하이	69	내곡	17
상둔	17	포도	58
하둔	24	도선	61
가동	50	산내	35

자료: 고성문화원, 2007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횡목의 『고성총쇄록(固城叢錄)』을 사례로

보를 위해 백성으로부터 각종 세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거두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임무는 자연재해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클 경우 정부, 수령, 백성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 국가는 체제 유지와 왕족과 중앙 관료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은 거의 전적으로 백성의 세금에 의존하는데, 백성은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런데 고을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은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지만 중앙 권력가들은 세금 징수를 독촉하고 처벌하니 수령의 위치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자리였다.

각 영의 공전(公錢)을 거두어 수쇄하려 해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 동안 운영(監營), 통영에서 공문으로 독려함이 거듭 엄중하였지만 흉년의 민심이 각박해져서 어찌할 수 없이 늦은 봄까지 끌어왔으나 전부 백성의 형편만 볼 수도 없다. 이날부터는 다시 엄격한 독촉을 하니 차마 하지 못할 일인 줄은 알면서도 하는 것도 많았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머리와 수염이 희어지는 듯하였다(1894년 3월 8일, 428).

갓가지 공전(公錢)이나 관수(官需)까지도 보리 수확 전에는 일제히 받아 들임을 멈추게 하니 대저 흉년에 백성의 힘을 덜기 위해 서이다. (그러나) 중앙과 감영에 갓가지 상납이 이 때문에 늦어지므로 독촉 공문이 모여들어 날마다 더욱 심해져 성화(星火)해대는데, 이날부터 비로소 찾아내어 독려해서 기필코 기일 내로 청산하려는데 저 우매한 백성은 아직도 미루고 관망하려는 습관이 있으므로 마지못해서 종아리를 치기도하고 혹은 벌칙을 계시해서 감독도 하였으니 참으로 관리 노릇 하기가 괴로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1894년 5월 22일, 486).

오횡목은 진휼의 실행을 위해 재해조사를 하면서 또 다른 수령의 임무인 세금을 거두기 위해 10월 28일에 창고의 문을 열었다(표 4). 이 날 받아 들인 세미(稅米)가 35석이나 되어 기대 이상이었

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상부에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거두는 일이 쉽지 않아 관계자들을 독촉한다. “세미는 이달 15일까지 마감하라고 특별히 명령하였는데 근일에는 하루에 백석에 지나지 못하니, 어떻게 3천여 석을 마감해내겠는가? ... 각 면의 면수(面首)와 집장, 각 동의 동수(洞首)와 정군(井軍), 두민(頭民) 등에게도 엄명을 내리고 백성에게 다짐을 받도록 하였다”(1893년 11월 8일, 326). 그러나 오횡목은 굶주린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괴로움 속에서도 기생들과 일상적인 여흥을 즐겼다. “조창(漕倉)에 나아가 세(稅)를 받고 사창(司倉)에도 가서 환곡(還穀)을 받고 밤에는 세 기생이 와서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실컷 마셨다”(1893년 10월 29일, 318).

6. 가뭄·횡포와 백성의 빈곤한 생활 그리고 민요(民謠)

관개시설이 발달되지 못한 전통사회에서 지속적인 가뭄은 농산물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흉년을 일으키며 이는 농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백성들의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가뭄이란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흉년에 지방의 아전과 향리의 횡포가 심해지면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하게 되며 나아가 농민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농경사회에서의 백성들은 자연 환경에 순응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따르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변신하였고, 이는 사회·정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 19세기 말 전라도와 경상도의 여러 지역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작성된 오횡목의 일기는 흉년과 관리들의 횡포에 의해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하게 되었고 이에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²⁵⁾

1) 가뭄·횡포와 백성의 빈곤한 생활

19세기 후반 가뭄과 관리의 횡포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고성 백성²⁶⁾들의 비참한 삶은 두 집단, 어느 정도의 농토에 기반을 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후자의 생활은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비참하였다. 가뭄과 관리의 횡포에 의해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게 된 현실은 오횡목이 고성부사로 부임한 직후 고을 폐단을 조사하여 정리한 16 항목²⁷⁾에서 잘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 지금은 해마다 흉년이 든 나머지, 밖으로는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하고 안으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양육에 근근이 꾸려가기도 어렵는데 아전들의 횡포가 끝이 없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겠는가?” “관속 무리들이 남의 돈을 강제로 차용하고서 권세를 믿고 값지 않거나, 채리(債利)를 추심하지 못했다 해서 공전(公錢)으로 만들어 놓고 패(牌)를 보내어 독촉하는 자도 있으니 ...”(2007년 3월 1일, 49, 51). 백성들의 삶이 점점 힘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1893년 7월 22~23일 동안 고성을 강타한 태풍과 가뭄의 피해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 밤에 오횡목이 쓴 시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소리는 큰 우레와 같으니 귀신도 놀라고, 차가움은 서리에 견주니 초목을 죽이도다. ... 아침에 들판을 보니 들판엔 푸르름이 없고, 마르고 시들은 빈 쪽정미만 서로 비치누나. 부너지는 발머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웅성거리는 일만 입은 어디에 가서 의지하나 ... 더구나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사나운 취렴을 요구한다하니, 바람이 더욱 사나워 피와 기름을 파먹음과 무엇이 다를 소냐? 재앙과 폐막을 주리고 없애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1893년 7월 26일, 227~228).

해가 바뀐 뒤 보리 수확이 있기 전까지 백성이 굶주리는 안타까운 처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봄날은 길어져 하루가 한해 같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참혹한 모습들이로다. 기러기 때처럼 아우성치고 못으로 모이니 한 사람이라도 불우하면 누구의 탓이란 말인가? 입은 많은데 먹거리가 없으니 어찌 하는가? 보리 익을 때 까지도 막연하여라”(1894년 1월 11일, 380).

1894년에도 벼의 성장기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 그리고 하층 관리들의 횡포도 근절되지 않아 오횡목의 근심은 커지게 되었고, 마침내 7월에 고성 북쪽의 3면(회현면, 구

마면, 마암면)을 중심으로 민요(民擾)가 발생하였다. 다음은 1894년도 가뭄, 관리의 횡포, 세금으로 인해 백성의 생활이 무척 어려운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모든 우리 고성 백성들이 사나운 취렴에 곤궁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몇대로 걷는 징수와 부정한 명색의 징수가 해마다 불어나니 백성들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 가뭄이 거듭 혹독하게 들고 흉년이 거듭되었으니 앞날의 춤고 배고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눈앞에 다가오는 부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1894년 7월 28, 565~566).

고을(고성)이 바닷가에 있어 토지도 척박한데 영문의 관할 아래 군수의 공금은 많고 곡식의 수확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생의 정상은 더욱 황급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에 이러한 백성의 힘으로 관례와 법대로 취렴을 상납하라고 한다면 거북 등에서 터럭을 깎음과 같으며 모기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격이 됩니다. 더구나 근년에 새로 정한 상납은 해마다 명목이 더해지고 보태지며 잡비는 날마다 더해지니 고을은 도패(倒敗)에 이르고 민생은 지탱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고 유지해내는 계획이 없습니다(1894년 8월 25일, 624~625).

당시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백성들, 결인, 품팔이, 도적 등이 존재하였다. 오횡목이 고성부사로 부임한 직후에 조사한 고을 폐단을 보면, 거지 무리가 횡포하거나 밥이나 식량을 억지로 달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을 거스르면 패악질과 망나니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1893년 8월 4일에 감영에서 내려 온 공문에 의하면, “지금 보리 고개의 궁핍과 가뭄이 심하니 민심이 어지럽고 급해서 흠어지어 도적 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도다. 각 면의 마을에 식량이 떨어진 백성은 일가와 동네에 조금 여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도와서 생명이라도 보전하게 해야 한다”와 지시하고 있다. 1894년 1월 8일의 일기는 “성 아래에 늘 있는 결인(乞人)이 모두 합하면 24명이 되는데 이날 저녁

조선 후기 지방의 낱새,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횡목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료로

에 흰 쌀밥과 고기죽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다. 어떤 사람은 두 세 그릇을 먹는 이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2) 민요(民擾): 흉년의 굶주림과 아전들의 횡포에 대한 저항

19세기 후반에는 각 지역에서 농민의 저항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민요의 정점에 1894년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전쟁(혹은 동학혁명)²⁸⁾이 있다. 같은 해 2월 15일에 오횡목은 감영의 공문에 따라 고성과 맞닿아 있는 사천에서 발생한 민간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관으로 부임되어 고을 폐단과 백성의 피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7월 말에 예상하지 않았던 민요가 고성의 북쪽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고성 민요의 과정을 분석하기 전에 사천과 고성 민요를 일으킨 농민들의 인식을 서술한다.

오횡목이 사천 민요를 조사하면서 민란을 주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기록해 두었다. 민란의 우두머리인 최인회(39세)는 오횡목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의 몸은 바닷가에서 성장해서 비록 지식은 없지만 대강의 법도와 의리를 아는데 스스로 보전하니 못하는 지극한 상황에 과연 혈기의 망령된 움직임을 하였습니다. ... 우리 고을의 교활한 아전들이 백성을 박탈하고 고을을 병들게 하여, 이자들의 민가 12채를 불살라 멀리 도망치게 하여, 이 고을에서 거주하면서 이 백성을 좀먹지 못하게 하려 했음을 아립니다. ... 백성의 도리를 잃고 불법을 행한 죄만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고을과 백성의 오래 쌓인 폐단은 지금이라도 다행히 바로잡아진다면 저의 몸은 비록 죽는 날이 되더라도 또한 장차 감격할 것이오니 특별히 명찰하신 조사를 통해 처리해 주십시오(1894년 2월 27일, 420~421).

사천 민요의 다른 핵심 인물들도 최인회의 뜻에 따랐고 자신들이 저지른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사천의 일이 끝나고 5개월이 지난 뒤 오횡목은 자신이 다스리

고 있는 고성에서 예기치 않았던 민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오횡목이 고성 민요의 원인을 조사함에 있어 자신은 부임 초기부터 고을의 폐단을 척결하여 백성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수령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즉 중앙과 영(營)에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요에 가담한 사람의 물음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뛰쳐나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의 여러 조항은 과연 원님의 말과 같습니다만 근일(近日)에 감독관이 나와서 민간에게 폐를 끼치는 실제로 원님이 부임 후에 처음 있는 일로서 잘못된 정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횡목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흉년으로 인해] 당초에 세금의 받아들임을 정지한 것은 보리 수확할 때까지만 한정해서 백성들의 힘을 펴주고자 한 계획이며 보리가 수확된 뒤에는 조용히 수습하고자 하였다. 입으로 타이르고 공문으로 일렀으되 헛수고일 뿐 유익함(실용성)이 없었고 삼영(감영, 통영, 병영)에서의 공문 독촉은 날마다 모여드니 각 항목의 해당 세제(稅制) 때문에 윗 관청의 시달림에 이른 것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한 번 내왕하는 비용이 백 냥 천 냥에 이르니 그 피해는 또한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득이 감독관을 내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 진실로 당신의 말과 같다면 정당한 부세도 시행하지 않은 다음이나 마음에 만족하십니까?(1894년 7월 28일, 566~567).

최희정(1997)은 고성의 농민봉기를 읍권(邑權)을 둘러싼 갈등²⁹⁾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세기 많은 농민봉기에서 농민들의 주요 불만은 국가의 부세수취(賦稅收取) 문제였다. ... 고성의 농민봉기도 정부의 부세수취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상당부분 규정된 세금 외의 세금인 잡역세(雜役稅)에 의존하였는데, 중앙의 잡역세에 대한 지방으로서의 정기적·비정기적 상납(上納) 독촉과 요구는 지

방의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다. 따라서 중앙으로의 공식적인 상납과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관도 이 문제는 큰 고충이 아닐 수 없었다”(최희정, 1997, 51). 김현구에 따르면, “고성 민요의 발단은 외견상으로 고을의 업무를 이끌어 왔던 이서층의 갈등과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본질적인 주요 원인은 남배전(監排錢)으로 불린 잡세의 수취 과정에서 다년간 저질러진 아전들의 비리와 운영의 모순이 초래한 것이었다”(고성문화원, 2007, 21).

1894년 4월 이후 오형목의 일기에는 동학에 대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6). 이는 동학교도들의 활동이 고성 고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미리 동정을 파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6월 3일에 감영에서 온 공문은 동학의 무리들이 호남에서 영남으로 이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다. 이 공문은 동학을 단속하기 위해 오가통(五家統)³⁰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7월 23일에 고을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챙기는 아전의

우두머리들이 오형목에 한 보고에 의하면,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부당한 여러 가지 세금을 직접 조사하여 바로 잡기 위해 모임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오형목 자신은 별 문제가 없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들의 농간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한 이래로 이른바 바르지 못한 명색과 각 공전(公錢)의 부당한 배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삭감해서 미진한 바가 없는데 백성들의 의론이 또 이와 같으니 반드시 너희들(아전들)이 농간하는 것이로다. ... 지금 가뭄 걱정이 이렇게 심한 날에 백성들이 모이는 일은 매우 이름답지 못하다(1894년 7월 23일, 550).

7월 28일 순영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하동부(河東府)에도 민간 소요가 일어나 오형목이 조사관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고을에서 진행 중인 민요 때문에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

표 6. 동학난 및 고성 민요의 전개

일 시	내 용
1894년 5월 4일	통영으로부터 온 전라감영의 소식에 의하면, ‘동학은 더욱 창궐한다’고 함.
6월 3일	감영의 공문, 전라도의 동학 무리가 흩어지면 반드시 영남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 각 고을에 은밀히 명령해서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
29일	전주감영의 소식, 초토사가 동학도를 소탕하고 평정한 뒤로 나머지 무리가 몽치어 여러 고을에 피해를 입히다.
7월 23일	좌수와 공형으로부터 ‘우리 고을 사람들이 지나친 배당 중에 삭감이 미진한 것을 바로 잡고자 ... 백성들이 모임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음.
24일	“백성들이 큰 읍 아래에서 모여 심등 안의 부정한 배당전을 사찰한다” 하니, 오형목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음. 부임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놀라고 걱정이 되었음.
28일	북삼면의 크고 작은 마을의 백성 몇 천 명이 폐단을 개혁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깃발을 세우고 배둔리에 모여 내일 오전에 읍으로 온다고 함. 북삼면 외에 각 면은 내일 용두정에 모인다고 함.
30일	고을의 소요 상황과 하동사관(河東查官)을 감영과 통영에 보고 함.
8월 3일	소요 사태가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오형목은 자신이 곧 교체될 것을 예상함.
6일	동학도인 최학봉이 관아로 찾아와서 면담함.
8일	고성부사를 교체하는 문서가 한양에서 내려옴.
12일	읍민 몇 천 명이 용두정에 모여 서로 다투고 있다고 보고를 받음.

자료: 고성문화원, 2007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횡목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기로 작성하였다. 오횡목은 하급 관리로부터 “가뭄까지 겹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거동(민요, 民擾)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기우제에 예물을 다했으니 반응이 없으며 시절은 이미 늦어져 곡식을 먹을 희망이 없고 부세의 독촉만 다가오게 되었으니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이 모인 곳에 직접 나가 거동의 의도를 물었고,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고성 백성들이 사나운 취렵에 곤궁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몇대로 걷는 징수와 부정한 명색의 징수가 해마다 불어나니 백성들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 가뭄이 거듭 혹독하게 들고 흉년이 거듭되었으니 앞날의 춥고 배고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눈앞에 다가오는 부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애시당초 하소연해서 청원을 얻어내려면 스스로 많은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하고 시끄럽게 되었는데, 몸소 직접 정실(情實)을 문의하시니 우두머리가 된 자는 만 한번 송구스럽습니다(1894년 7월 28일, 565-566).

7월 30일에 고을의 소요 상황을 감영과 통영에 보고 한 후 8월 3일에 소요는 진정되어 가고 있었지만 오횡목은 자신이 수령직에서 곧 물러나 할 것을 예측하였다. 이후 관아로 찾아온 동학도 최학봉으로부터 고을을 바르고 인자하게 다스렸다는 백성들의 소문을 전해듣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 수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는 분명하였고, 자연 재해와 과중한 조세에 따른 백성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고을 백성들도 오횡목의 바른 정사를 인정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과도한 부세와 아전과 향리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거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7. 결론

자연은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서구의 근대 과학과 인간중심적 사고

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객체로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자신의 의도대로 지배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물체로만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 행위의 결과로 이웃, 지역/지방, 국가, 세계 차원에서 수많은 자연환경의 파괴, 오염, 변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단적인 예가 기후변화에 따른 인간과 동·식물에 미칠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영향들이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무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설명 혹은 해석의 틀과 이의 현실적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이후 지리학이 선도한 뒤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을 길잡이 삼아 1893~1894년 오횡목이 고성부사로 재직하면서 일상의 일들을 기록한 『고성총쇄록』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체제가 성립되기 전인 조선 후기에 고성 지방을 다스렸던 수령인 오횡목이 날씨, 백성의 생업과 삶, 지방행정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오횡목은 날씨를 크게 세 가지의 표현 방식, 단순·변동·농사 관련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첫 번째는 날씨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반면 두 번째는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늦봄부터 늦여름 동안의 날씨의 분석에 의하면, 날씨의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이 확연하게 파악된다. 이러한 날씨의 변동을 논농사와 결부시키면, 전근대 사회에서 날씨의 변동이 농사와 농민의 삶 나아가 국가체제와 사회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날씨 변동은 그 자체보다 백성의 삶과 사회·경제·정치와 연관시킬 때 보다 큰 의미와 중요성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오횡목은 날씨의 한 요소인 가뭄이 벼농사에 주는 피해가 고성 고을 내부 혹은 경상도 남부 지역에서 균등하지 않고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파악하였다.

둘째, 오횡목의 『고성총쇄록』은 일반적으로 날씨와 중앙·지방의 재정정책이 특정한 조건, 즉 가뭄이 심할 경우 상충하여 사회·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사철에 비가 알맞게 내려 풍년이 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인 가뭄으로 농민의 삶이 대단히 어려워질 경우 전근대 국가(혹은 왕조)는 체제 유지의 토대를 이루는 농민을 재생산시키기 위해 백성들이 진흥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진흥의 실행과 세금의 징수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백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지방관료(수령)가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였다. 지방관료는 심한 가뭄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백성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진흥을 실행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백성들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해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어렵고 힘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백성과 지방관료의 어려운 처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왕과 중앙 관료는 유교의 근본 형식과 이념,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며, 왕과 중앙·지방 관료들은 이들의 어려움을 잘 보살피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다.

셋째, 지속적인 가뭄에 고성의 백성들은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의 하위관료들이 세금징수의 횡포가 심해지자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민요(民謠)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민요를 주도한 인물들의 진술에 의하면, 백성들은 왕의 권위 혹은 유교에 토대를 둔 국가 이념, 수령(오흥목)의 치적 등을 인정하면서 지방 하위관료의 횡포를 스스로 바로 잡고 해당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해 집단적 행동을 표출하였다. 민요를 일으킨 백성들의 행동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행위는 오흥목 부사의 공무집행, 진흥정책, 기우제 실행, 세금 징수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성이란 특정 지방에서 펼쳐진 날씨, 농사와 주민의 삶, 지방행정의 상호 관계는 개별 가구 혹은 고을, 지방, 도, 국가의 중층적 규모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심한 가뭄에 의한 흉년은 고을 주민(혹은 개별 가구)의 삶을 곤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방과 국가의 재정 확보를 어렵게 하고 때때로 민요를 통한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킨다. 심한 가뭄 때 수령 자신이 다스리

는 고을(혹은 지방)과 관련된 공무의 집행, 진흥의 실행과 세금의 징수 시에 백성, 지방, 도, 국가(중앙)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성에서 일어난 민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내·외적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

- 1) 정치생태학의 용어는 인류학에서 1970년 초반 Wolf (1972)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Blaikie and Brookfield (1987)의 저서가 출판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치생태학은 로컬연구(local studies)와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 그리고 1980년 이후 탄생한 신생태학(new ecology)과 사회과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연구 분야이다(박규택, 2005; Nygren and Rikoon, 2008).
- 2) 본 연구에서 『고성총쇄록』은 『국역 고성총쇄록』을 지칭한다.
- 3) 일 년 가운데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달은 7월로 261.4mm가 내렸고, 다음으로 6월(210.5mm)과 8월(222mm)이며, 비가 가장 적게 오는 달은 12월로 22.5mm가 내렸고, 다음으로 1월(33.6mm)과 2월(43.8mm)이다(기상청, 기후자료/통영)
- 4) 일 년 가운데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 25.7°C이고, 다음으로 7월(24.2°C)과 6월(20.6°C)이며,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2.7°C이며, 다음으로 2월(3.9°C)과 12월(5.2°C)이다(기상청, 기후자료/통영)
- 5) 조선시대의 기후환경과 소빙기 기후에 관한 지리학적 접근은 김연옥의 연구(1984, 1987)가 있다.
- 6) 중앙정부는 관찰사와 지방 수령을 통하여 농민의 농업 생산활동을 감독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령들은 자신의 관찰 고을의 농형(農形)을 관찰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찰사는 수령들의 보고를 취합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염정섭, 2006, 61).
- 7) 새로운 생태학은 1980년대 이후 생태학의 이론적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이 개념 대신에 역동적 생태학(dynamic ecology) 혹은 혼돈의 생태학(ecology of chaos)이란 용어가 선호되기도 한다(Zimmerer, 1994, 109).
- 8) Paulson 등은 권력(power)과 정치(politics)를 관련시켜 자원과 사람/사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권력(power)을 자원과 위협의 비대칭적 분배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로 개념화시키며, 이것은 사람, 장소, 자원의 상호작용 속에 그리고 이들을 결합시키는 과정 속에 위치된다. 정치(politics)는 그러한 권력이 실천되고 매개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진다. 생성된 권력과 정치의 개념을 응용하기 위해 지역적·지구적 요인들과 아이디어를 고려하면서 한적적 생태적 현상과 로컬의 사회적 과정을 정교화시킨 다층규모(multiscale)의 연구모형이 요청된다. 또한 사

조선 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형목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 회 집단들 간에 혹은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와 권력의 관계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연구와 실천 방법을 필요로 한다”(Paulson et al., 2003, 205).
- 9) 정치생태학에서 규모의 이론 혹은 정치 그리고 다층적 규모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엄은희, 2008; Galt, 2010; Mauro, 2009; Neumann, 2009).
 - 10) “중농정책은 조선왕조의 중요 국가시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권농은 수령은 물론 감사의 중요한 직임이기도 하다. ... 감사는 농사의 진행상황, 농작물의 작황, 충해상황 및 우형(雨形, 날씨) 등은 군현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받아 총괄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이수환, 2004, 53).
 - 11) 수령이 수행해야 하는 일곱가지 일은 농상성(農桑盛), 호구증(戶口增), 학교흥(學校興), 군정수(軍政修), 부역균(賦役均), 사송간(詞訟簡), 간활식(姦猾息)이며, 이는 감사가 수령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이수환, 2004, 55).
 - 12) 중국 주나라 때 농민을 독려하던 벼슬을 말한다.
 - 13) 오형목이 고성부사로 부임한 직후 살펴 본 읍지(邑誌)에 따르면, 고성에 14개의 제언(堤堰)이 기록되어 있다(고성문화원, 2007, 88~89). 그러나 이들 제언이 가뭄 시기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고성총쇄록』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오형목도 이것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4) “[5월 초] 한 줄기의 비가 내린 후에는 날마다 가뭄이 연이어 일찍 심은 벼 중 약간은 이미 점점 마르고 있어서 뿌리를 잡을(내릴) 기약이 없다. 봉천담(奉天畓, 천수담)은 물을 담을 희망이 없고 겨우 땅에서 뾰족이 나오는 목화의 연한 잎은 시들어 마르고 있으며, 김매는 호미도 쓰기가 어려우며 근경(根耕, 보리 수확 후에 콩을 심는 밭)한 콩과 팔도(역시 심었으나 싹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들녘일에 걱정이 많았다”(고성문화원, 2007, 196).
 - 15) 1893년 8월 23일 오형목은 대구에 있는 경상감영에 들러 감사에게 고성의 흉년 상황과 고을 일을 보고하였다. 이후 대구와 청도의 경계를 이루는 팔조령을 지나 밀양을 거치면서 경상도 중남부 지역의 흉년 상황을 보고 들었다.
 - 16) 고려 시대의 기우제는 불교·도교·무속·유교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와 숙종 30년(1704년)에 이르는 동안 불교·도교·무속의 요소들이 탈락하고 거의 유교적 기우제로 정비되었다(오인택, 2007, 171).
 - 17) 기우제 횟수는 6월에 460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7월, 5월, 8월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월 이후 기우제의 실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입추 이후에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우제를 억제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 18) 사직단은 관아에서 7리 그리고 향교에서 3리 떨어진 곳에 있다.
 - 19) 제사 때 임시로 임명하는 제관.
 - 20) 조선 중·후기 진흥정책과 지방(혹은 군현)지배의 관계에 대한 논문은 구완희(1993)와 박경하(1998)가

- 있다.
- 21) 재해시 기민 구제의 혜택은 백성들에게 조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효과가 컸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진흥정책은 재정 수입의 감축과 직결되었다(정형지, 1997, 49).
 - 22) 원재영(2008)은 임실현 사례를 통해 조선 후기 진흥정책을 권농, 감농(監農) 혹은 방재(防災), 진흥의 관계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 23) 1893년 6월 14일의 일기에 ‘전에 함안에 있을 때 매양 영남에서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이 함안이라 하였는데, 이 고을(고성)에 비하면 함안은 오히려 누워서 다스린 고을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 24) 오형목이 불편부당한 세금을 바로잡아 백성의 짐을 줄이려고 노력한 반면 하위 관료, 손님, 기생 등과 여흥을 즐기고 감사, 통제사, 중앙 관료 들에게 선물도 하였다.
 - 25) 고을 백성 삶의 비참함과 이들의 저항 활동은 오형목이라는 지방 관료의 일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당시 고성 지역에 살았던 일반 백성들의 생각과 생활상 나아가 저항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오형목의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 26) 오형목의 일기는 고성 고을의 지주와 이들의 생활 혹은 횡포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 27) 16개 조항은 48-52쪽에 서술되어 있다.
 - 28) 전국 80개 이상의 고을에서 일어난 1862년 농민전쟁 폭발 이후 대원군집권기에는 상대적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1880년대 이후 다시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여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끊임없이 일어났다(배항설, 1994, 45).
 - 29) 김동철(1989)은 1894년에 일어난 함안민란을 ‘수령-이서·향리의 수탈구조’와 ‘조선 후기 상업구조의 폐단’이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30) 오가통(五家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활동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대단히 치밀하게 조직되었다. “한 통에는 통수(統首)가 있으며 다섯 통에는 두령(頭領)을 두며 열 통에는 통장(統長)을 두며 한 동(洞)에는 영수(嶺首)을 두고 모든 동에 관계된 사람은 나들이 행동과 바깥 사람들이 오가며 접촉하는 자를 각별히 살펴서, 수상한 자취가 있으면 세밀히 탐색하여 통수는 두령에게 고하고 두령은 통장에게 고하며 통장은 영수에게 영수는 관아에게 고하고 관아는 감영에 고해야 한다”(1894년 6월 3일, 495).

문헌

- 『戶口總數』
 고성문화원, 2007, 『國譯 固城叢瑣錄』
 김동철, 1989, 19세기 말 함안지방의 향전, 한국민족문화, 2, 129-194.

- 김연옥, 1984, 한국의 소빙기 기후 - 역사 기후학적 접근의 시론, *지리학과 지리교육*, 14, 1-16.
- 김연옥, 1996, 역사속의 소빙기, *역사학보*, 149, 253-265.
- 김오진, 2008,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민(官民)의 대응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43(6), 858-872.
- 구완희, 1993, 조선후기의 진흥정책과 근현지배-수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6, 69-105.
- 김재호, 2001, 한국 전통사회의 기근과 그 대응: 1392-1910, *경제사학*, 30, 47-85.
- 박경하, 1998, 조선중기 진흥정책과 지방지배, *중앙사론*, 10·11, 127-143.
- 박규택, 2005, (탈)근대 지역과 사회·경제 발전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이론 고찰, *경북대학교 지리학연구*, 24, 181-196.
- 박근필, 2005, 기후와 농업의 미시분석(1653~1655)을 통해 본 『農家集成』 편찬의 배경, *농업사연구*, 4(2), 15-47.
- 범선규, 2010,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가 갖는 기후 및 식생 연구 자료적 의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1), 16-33.
- 배항섭, 1994,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근현대사강좌*, 5, 43-60.
- 소선섭·김용현, 2000,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기상요소, 기우제 및 기청제, *한국지구과학회지*, 21(1), 41-50.
- 엄은희, 2008, 반(反)광산 지역운동과 다중 스케일적 연대: 필리핀 라푸라푸 프로젝트의 정치생태학, *공간과 사회*, 30, 177-212.
- 오인택, 2007, 숙종대 국행 기우제에 나타난 한재 대응방식의 정치성, *역사학연구* 29, 171-195.
- 오종록, 1991, "15세기 자연재해의 특성과 대책", *역사와 현실*, 5, 30-50.
- 오용원, 2009, 기후제의(氣候祭儀)를 통해 본 영남 지방관의 일상과 대민 의식, *영남학* 16, 125-160.
- 이기태, 2007, 마을기우제의 구조와 사회통합적 성격, *한국민속학*, 46, 265-301.
- 이민수, 2002, 조선초기 사회정책연구 -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경주사학*, 21, 83-126.
- 이수환, 2004, 경상감사의 직무와 권한, *경상북도·경북대 영남문화연구소,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51-79.
- 이승호·허인혜·이경미·김선영·이운선·권원태, 2008, 기후변화가 농업생태에 미치는 영향 - 나주지역을 사례로, 43(1), 20-35.
- 이호철·박근필, 1997, 19세기 초 조선의 기후변동과 농업위기, *조선시대사학보*, 2, 123-191.
- 염정섭, 2006, 18세기 후반 정조대 농정책의 시행과 의의, *농업사 연구*, 5(1), 49-79.
- 원재영, 2008, 조선후기 진흥정책의 구조와 운영-1814-1815년 전라도 임실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375.
- 정형지, 1997, 숙종대 진흥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25, 48-86.
- 정형지, 2003, 조선시대 기근과 정부의 대책, *이화사학연구*, 30, 231-257.
- 최종성, 2008, 숨은 천제(天祭)- 조선후기 산간제천 자료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3, 63-84.
- 최종성, 1997,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 - 시체처리와 제물처리를 중심으로, *종교학*, 16, 165-202.
- 최희정, 1997, 1894년 고성(高城)의 농민봉기와 읍권(邑權)주도를 둘러싼 갈등,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호, 2002, 18-19세기 조선의 기후, 작황, 가격의 변동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25(2), 81-110.
- Blaikie, P., 1985, *The Political Economy of Soil Erosion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Longman.
- Blaikie, P. and Brookfield, H., eds. 1987, *Land Degradation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 Botkin, D.B., 1990, *Discordant Harmonies: A New Ec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yant, R.L., 1998, Power, knowledge and political ecology in the third world: a review, *Progress in Physical Geography*, 22(1), 79-94.
- Burry, J., 2008,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livelihood transformations in the Peruvian Andes: an actor-oriented political ecology, *Human Organization*, 67(3), 307-321.
- Chowdhury, R.R. and Turner II, B.L., 2006, Reconciling agency and structure in empirical

- analysis: smallholder land use in the southern Yucatan, Mexico,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6(2), 302-322.
- Denevan, W.M., 1983, Adaptation, variation, and cultural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5(4), 399-406.
- Galt, R.E., 2010, Scaling up political ecology: the case of illegal pesticides on fresh vegetable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1996~2006,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0(2), 327-355.
- Head, L., 2010, Cultural ecology: adaptation - retrofitting a concep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2), 234-242.
- Mauro, S. Engel-Di, 2009, Seeing the local in the global: political ecologies, world-systems, and the question of scale, *Geoforum*, 40, 116-125.
- Neumann, R.P., Political ecology: theorizing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3(3), 398-406.
- Nygren, A. and Rikoon, S., 2008, Political ecology revisited: integration of politics and ecology does matter,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21, 767-782.
- Oetelaar, G.A. and Oetelaar, D.J., 2007, The new ecology and landscape archaeology: incorporating the anthropogenic factor in models of settlement systems in the Canadian prairie ecozone, *Canadian Journal of Archaeology*, 31(3), 65-92.
- Paulson, S. et al., 2003, Locating the political in political ecology: an introduction, *Human Organization*, 62(3), 205-217.
- Phillips, J.D., 2004, Divergence, sensitivity, and nonequilibrium in ecosystems, *Geographical Analysis*, 36(4), 369-383.
- Rangan, H. and Kull, C.A., 2009, What makes ecology 'political'? rethinking 'scale' in political ecolog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3(1), 28-45.
- Scoones, I., 1999, New ec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what prospects for a fruitful engage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8(1), 479-507.
- Walker, P.A., 2005, Political ecology: where is the ecolog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1), 73-82.
- Walker, P.A., 2007, Political ecology: where is the politic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3), 363-369.
- Watts, M.J. et al., 1997, Classics in human geography revisit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1), 75-80.
- Wolf, E., 1972, Ownership and political ec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43(3), 201-205.
- Zimmerer, K.S., 1994, Human Geography and the "new ecology": the prospect and promise of integr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4(1), 108-125.
- Zimmerer, K.S., 2000, The reworking of conservation geographies: nonequilibrium landscape and nature-society hybrid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0(2), 356-369.

(접수: 2010.4.7, 수정: 2010.5.3, 채택: 2010.5.27)